

연기찬탄송

쫄카파 대사 지음

나모 구루 만주교샤야

가장 지혜로운 분,
비할 데 없는 설법자,
연기법을 깨달아 설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무지라는 뿌리에서 비롯되니
연기법을 보는 것으로
뿌리가 제거된다고 설하셨네.

이때 지혜로운 이라면
연기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임을
어찌 이해하지 못하리!

그러므로 구제자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유 중에
연기법을 설하신 것보다
더 훌륭한 점을 찾을 수가 없네!

‘조건에 의존하는 것들은
자성이 공하다.’라고
설하신 이보다 더 경이롭고
훌륭한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있고 없음을 집착하는 어리석은 이들은
극단의 견해에 깊이 빠져있지만
진여를 아는 이는 분별망상의 그물을
모조리 잘라 내리라.

이와 같은 가르침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였으니
제게 스승은 오직 부처님 한 분 뿐,
외도에게 정법이 있다 함은
여우를 사자라고 아첨하는 것과 같네.

안내자여! 귀의치시여!
최고 설법자여! 구체자시여!
연기법을 올바르게 설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을 위해
약과 같이 설하신
불법의 핵심,
공성을 깨닫게 되는 비할 데 없는 근거,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연기법’이
모순이고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이들이 어찌
불법을 이해하겠는가?

어느 날 연기법을 통해서
공성을 본다면
무자성과
행위자와 행위에 모순이 없지만

이와 반대로 본다면
공성인 것에 행위가 있을 수 없고
행위가 있는 것이 공성일 수 없으니
위험한 벼랑에 떨어진다고 설하셨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연기법을 보신 것을 최상으로 찬탄하나니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자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허공꽃처럼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네.
자성을 가진 존재라면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여 성립하는 것은 모순이네.

그런 까닭에 의존하여 발생한 것 외에
어떤 법도 존재할 수 없고
자성으로써 공한 것 외에
어떤 법도 존재할 수 없네.

자성은 제거할 수 없으니
어떤 것에 자성이 있다면
열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고
분별망상을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하셨네.

그러므로 현자들의 무리에서
사자후로 자성이 없음을
거듭 설하신
이 가르침 누가 반박할 수 있으리!

어떠한 것에도 자성은 없으니
서로 의존해서 발생하는
모든 원리가 모순없이
하나로 귀결됨은 말할 필요가 없네.

의존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설하신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최상 설법의 근원이네.

모든 것은 본질이 공하고,
원인에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 두 가지를 얹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화합하는

이보다 더 놀라운 것과
경이로운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이 이치로 부처님을 찬탄하니
이보다 더 수승한 것은 없네.

미혹에 사로잡혀
부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무자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해도
그리 놀랍지 않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천이
연기법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성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나는 놀라움을 느끼네.

무자성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문인 연기법을
이름만을 붙들고
자성이 있다고 집착하는 이들을

뛰어난 성인들께서 거쳐 간
비할 데 없는 바른 길,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온갖 방편을 써서 인도하리라!

진여는 조작과 의존함이 없고
연기는 조작과 의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의 대상에
모순 없이 양립하는가?

그러므로 ‘의존해서 성립하는 것’들은
본래부터 자성이 없지만
자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일체법이 환영과 같다고 설하셨네.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느 누구도 지적할 점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으리.

무슨 말씀인가 하면
드러나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과장하고 숨길 수 있는
기회를 멀리 내치셨다는 것이네.

부처님의 비할 데 없는 연기법의 가르침을
보게 되는 것에 의해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 역시
올바른 말씀이란 믿음이 생겨나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진실하게 설하신
부처님을 따르는 이들은
모든 허물에서 차츰 멀어지니
모든 허물의 뿌리를 제거하기 때문이네.

반대로 부처님의 법을 외면하는 이들은
오랫동안 노력해도
오히려 허물만이 늘어나니
나라는 생각이 견고하기 때문이네.

지혜로운 이가 이러한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차릴 때
마음 속 깊이 부처님을 향한
공경심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는가!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일부만이라도,
혹여 대략적인 이해만이라도 얻는다면
최상의 안락을 얻게 되네.

나의 마음은 무지로 인해 망가져
이와 같은 공덕의 밭에
오랫동안 귀의하였지만
작은 공덕의 조각조차 얻지 못했네.

그러나 죽을 때가 가까워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조금이나마
부처님을 향해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게 되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네.

설법 중에 연기법을 설하시고,
지혜 중에 연기법을 깨달은 지혜로
은 세상의 제왕과 같은 부처님을
뛰어넘을 자 누구도 없네.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은
연기법에서 시작되어
열반으로 인도하니
적정이 아닌 다른 법은 설하지 않으셨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모두가 적정에 들게 되니
부처님의 법을 수지하는 이들을
누가 공경하지 않으리.

모든 반론들을 이기고
앞뒤 어긋남이 없으며
일체중생 자리이타를 이루게 하는
불법에 나의 신심 늘어만 가네.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
때로는 다른 이들을 위해 몸과 목숨,
재물과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무량겁 동안 거둬 베푸셨으니,

부처님의 공덕을 보고 나면
뉘시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부처님께 마음이 저절로 이끌리나
애석하게도 부처님께 직접 법을 듣지 못했네!

이 비통함이
하나뿐인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거룩한 상호 찬란하게 빛나고
광명에 둘러싸인 부처님께서
법음으로 이리이러하다고 설하시고

부처님의 이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열병에 시달리는 이에게
시원한 달빛처럼 약이 되네.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접하는데도
어리석은 이들은
잔디처럼 뒤엉켜 있네.

이와 같은 모습 보고서
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인들을 따라 부처님의 의중을
거듭 거듭 탐구하네.

한때 자종과 타종의
많은 교리를 배웠으나
늘어나는 의심들로 인해
나의 마음은 향시 편치 못했네.

부처님의 최상승의 도리를
있고 없음의 양극단을 여의고
여실하게 해석할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예언한 백련화원의 용수보살의

오류 없는 지혜가 넘쳐나와
허공에 걸림 없이 퍼져 나가니
양변을 집착하는 어리석은 마음과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별들을 제압하네.

월칭논사께서 훌륭하게 해석하여
광명으로 밝히셨으니
이와 같은 스승들의 은혜로
나의 마음은 안식을 얻었네.

부처님의 모든 업적 중
법을 설하신 업적이 가장 수승하나니
그 때문에 성인들은 부처님의 은혜를
항시 잊지 않고 기억하네.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수행하는 비구들은 이와 같은 행으로
위대한 성자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하네.

위대한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스승의 은혜이기에
이와 같은 선업도 일체중생이
바른 스승을 만나는 데 회향합니다.

일체중생을 위한 불법이 윤회계가 다할 때까지
잘못된 견해의 바람에 흔들리는 일 없게 하시고,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이들의
불법 향한 믿음 항상 가득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설하신
연기의 진여, 세세생생
몸과 목숨을 바쳐 지키겠으니
한 순간도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최고의 인도자께서 한량없이 애쓰며
중대하게 확립하신 이 법을
융성 시킬 방편 얻기 위해
밤낮을 고찰로써 지새우게 하소서!

청정한 열의로써 이와 같이 애쓸 때
제석천과 범천 등의 세간호주와
마하갈라 등의 호법신중들 역시
외면하지 않고 항상 도와주소서!.